

초야에 묻힌... 숨은 군자 양의당(兩矣堂) 권석두

양의당 권석두(權錫斗, 검교공과 31세, 1871~1952)는 평생 초야에 묻혀 농사짓는 평범한 농부였다.

양의당 권석두(권태강 검교공과 회장의 조부)의 묘갈명을 쓴 채산(蔡山) 권상규(權相圭, 1874~1961)는 그를 '실천하는 군자'라고 비문

에 바쳤다. 그 묘갈명이 영남문원(嶺南文苑)이라는 서책에 수록되어 있다. 영남문원은 영남지역의 명망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인 설총, 최치원, 권근, 정몽주, 이색, 갈채, 황희, 조광조, 이항, 류성룡, 송시열 등의 제문(祭文), 교서(敎書), 소(疏), 표(表), 책(策), 서(序), 기(記), 행장(行狀), 묘갈명(墓誌銘) 등도 함께 등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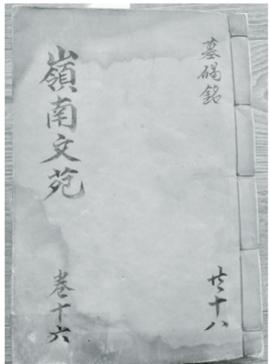
또한 영남문원은 1000부만 한정판으로 인쇄한 귀한 자료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골에서 농사짓다 일생을 마친 농부의 묘갈명이 정승, 관서, 학자들이 즐비한 영남문원에 수록될 수 있었을까? 양의당이 의병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로서 특별한 공을 세운 기록 등도 보이지 않는 데 말이다.

채산 권상규는 충재(沖齋) 권벌(1478~1548)의 후손이다. 채산은 태사묘중건기(太師廟重建記)를 지었고, 양의당의 묘갈명뿐만 아니라 그의 형 권석영의 묘갈명도 썼다. 채산은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저명한 인물들의 수많은 묘지명과 제문 등을 쓴 당대의 석학이었다. 개인 저서로는 동국사략(東國史略) 등을 저술했다.

채산은 권석두의 형과 친분이 있어서 어느 날 정담을 나누던 중 동생 권석두를 알게 되었다. 형 권석영은 채산에게 "내가 선조를 받들고 예법에 격정 없이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힘"이라고 소개한다. 그래서 채산은 "이런 형이 있으니 이런 아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알게 된 채산은 얼마 후 형과 동생이 차례로 작고하자 자제들의 청에 의해 묘갈명을 쓰게 된다.

양의당 권석두의 선조는 청백리 권빈(權璣)의 형 권림(權琳, 18세)이고, 립은 민수(敏手), 달수(達手), 개수(介手) 세 아들을 두었다. 이 중 퇴재(退齋) 민수는 대사헌을 지냈고, 동계(桐溪) 달수는 연관으로 활동하다 갑자사화(1504, 연산군 10년) 때 연산군의 폐비운복 위문제를 반대하다 화를 당했다. 그 때가 36세였다.

그의 아내 "정씨는 남편이 피주(被誅)됨을 듣고, 상주(尙州)에서 함창(咸昌) 고모 집에 왔는데, 그 고모가 죽(劬)을 권하니,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살아서 무엇하느냐?' 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죽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1년 11월 28



영남문원 표지

일) 홍주판관(洪州判官)을 지낸 개수는 형 달수의 피화(被禍) 사건을 겪은 후 스스로 퇴당(退堂)이라 호를 짓고 "동계공 피화를 애통해 하며 그 길로 벼슬을 버리고 은거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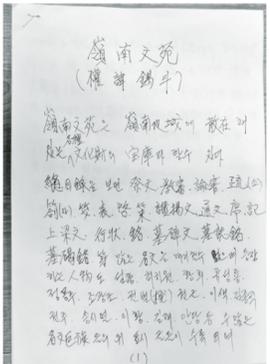
퇴당 개수의 증손 원당(元堂) 준(準, 22세)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망우당 객재우 장군 휘하의 부장으로 참여하여 의령 화양산성(火陽山城) 전투 때 크게 기여하였다. (壬辰倡義錄) 이때 권준은 왜군과 싸우다 중과부적으로 퇴각하던 중 고향 상주 함창에서 안동 풍천 갈천리의 첩살사중인 검무산 밑에 정착하게 된다. 이곳에서 착박한 산 밑을 개간하며 40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다 양의당 권석두에 이르러 농사로 부(富)를 이루어 자수성가하였다.

양의당은 어릴 적에는 순박하고(淳), 정직하며(直), 조용하고(卑), 후덕하며(厚), 공손하며(恭), 몸가짐이 조심스러웠다(謹).

또한 독서하기를 좋아했다. 양의당이 성장하자 선친(在享, 30세)은 형제들이 전심으로 학문을 하는 것은 가히 송상할만하나 아버지는 늙고 집안 형편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의당은 순순히 선친의 뜻을 받아들여 학문하는 것은 형에게 양보하고 집안 다스리는 것(治家)을 임무로 삼았다. 공부하면서 밭을 갈고 빨간 도 아껴가며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하면서 절약하고 온갖 정성과 힘을 다하자 표주박 같은 누추한 살림이 윤곽하게 되어 공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의당은 자신의 살림만 챙기지 않았다. 과거 시험 준비하는 형님의 모든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고 큰 집 살림까지 총력을 기울여 풀었다. 가족과 토지를 반드시 형에게 먼저 드리고 자기는 뒤로 하였다. 모든 대소사를 반드시 형에게 말씀드리고 결정했다.

선조들의 묘역에 석물과 위토 및 재사(齋舍) 등을 모두 양의당 자신이 계획하고 조치를 취한 후 그 공은 반드시 형에게 돌렸다. 자손들의 교육에도 힘썼다.



권태강 회장의 자필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재물을 빌려주었다가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는 그 해당 문서를 불태워 버렸다. 소작하는 사람에게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농이 요구한 대로 형편을 봐 주었다. 이런 양의당을 보고 원근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는 항상 "살림을 꾸려나가는 방법은 일하는 것은 빨리 하고 쓰는 것은 천천히 하며, 자신이 남을 해롭게 하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공이 공자에게 "한 말씀으로써 종신토록 행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그것은 서첩살사중인 검무산 밑에 정착하게 된다. 이곳에서 착박한 산 밑을 개간하며 40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다 양의당 권석두에 이르러 농사로 부(富)를 이루어 자수성가하였다. 양의당은 일을 하다 틈틈이 소학(小學)과 맹자(孟子)에 나오는 경사(經史)를 임의로 외우고 마음속으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항상 자손들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독서는 반드시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구차스럽게 입과 귀로만 익혀 문예(文藝)를 한다면 헛된 이름만 취하는 것이 되므로 실천이 없으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은 공행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서" (里仁) 그리 했으리라.

특히 양의당이 살았던 조선 말기는 이미 명(名)과 실(實)이 분리된 주자학이라는 허학(虛學)이 뿌리채 흔들려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새로운 학풍으로 실학(實學)이 등장했다.

또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상세계 건설을 위해 동학(東學)이 위용을 떨치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런지 양의당은 갈레로 방 뒹고 빛자루로 마당 쓰는 쇠소응대(澗掃應對)의 살아있는 소학을 생활화한 흔적이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 양의당이 가장 경계한 것은 실천 없는 학문인 듯하다.

공자가 그랬던가. "자제들은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

손하며 행동과 말은 삼가고 믿음직스럽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이(仁)를 가까이 하고, 이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하느니라"(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학이)

이처럼 양의당은 평생 인도(人道)의 근본인 효(孝), 우(友), 충(忠), 신(信), 근(勤), 검(儉), 공(恭), 서(恕) 여덟 자를 체화하여 실천했다고 채산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진이를 여질게 여기되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뀌며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인군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봉우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할 것이다"(논어 학이)고 한 자하의 말은 양의당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채산은 술회했다.

양의당은 매사에 민첩하고 윤리를 돈독히 하였으며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남에게 믿음과 의리를 주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양 하지 않으며 도탑고 진실하게 몸소 '실천하는 군자'였다.

어느 구석진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름 모를 농부를 당대의 석학이 인도지본(人道之本)이라는 엄격한 기준으로 감히 '군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역사상 자취히 드문 사례임에 틀림없다. 논어 맹자에도 성인과 군자의 모델은 보통 벼슬하는 정치인이나 학자 등이 대부분이다. 양의당처럼 일생동안 농사를 짓고 삶을 마감한 농부가 군자의 표상으로 제시된 적은 거의 없는 듯하다.

다만 삼봉 정도전이 나주로 유배 갔을 때 밭에서 호미 들고 김을 매는 시골 촌로가 조정의 벼슬아치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굴원과 한유를 들먹이면서 그대의 죄를 알겠노라고 정도전을 다그치자 "노인장께서는 은군자(隱君子)이십니다" 하는 대목이 나온다.

정도전은 이 노인장을 무지렁이 백성이 아니라 깨어있는 백성, 장저(長沮) 갈의(桀溺)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백성의 대표로 내세운다.(삼봉집 簞田) 이를 통해 어지러운 고려말의 난세 속에서 백성을 발견했노라고 선언한다. 민본의 나라 조선의 사상적 토대였다. 그러나 이 노인장의 구체적인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역사적 실존인물인지도 알 수 없다. 삼봉이 가상적으로 설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의당은 실존 인물이다. 그러나 이 영남문원의 기록이 어찌 가벼울 수만 있겠는가. '숨은 군자'의 발견은 유학사에 길이 남을 기적 같은 불후(不朽)의 기록이다. 또한 우리 안동권문 모두에게 양의당의 삶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편집국장 권혁완

안동종친회 임시총회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속동)는 10월 30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종원(宗員)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대중회 관계동, 권중준 고문, 안동종친회 권희택, 권재주, 권주연 고문, 원로회원, 권오국 전 태사묘관리위원장, 권오익 대중회 사무부총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기호 북야공파총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총회장, 권영건 부호장공파총회장, 권인탑 정조공파총회장, 운영위원, 총무협의회 등이 참석하였다.

권박 종친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문중을 빛낸 선조님에 대한



권속동 회장

시말을 통해 "오는 2019년 신년 인사회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앞장서 화합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신년인사회를 통해 우리 안동권씨안동종친회의 총화 단결된 '하나' 되는 모습을 안동시와 전국에 과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동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종원들의 도움없이는 이룰 수 없

다"고 지적, "앞으로 명첩(名帖)에 담을 광고협찬, 잔조금, 성금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 이어 부의(附議) 의안(議案)으로 채택된 '2019년(己亥年) 안동권씨 신년인사회'는 내년 2월 16일(음력 1월 12일) 안동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또 정관 제8조 부서(部署)와 제16조 회계연도의 현안은 부회장 30명 내외를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50명 내외로 인원을 늘리고 6월 1일부터 익년(翌年) 5월 말까지의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익년(翌年) 2월 말일까지로 개정하는 등 두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 토의에서 지금까지 해마다 신년인사회 때 1인당 5천 원씩 받던 참가비를 물가상승을 감안, 내년부터 1인당 1만 원씩 올려 받기로 결정했다고 권박 사무국장이 밝혔다.

임시총회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종친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양반밥상'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울산종친회 대전 도산서원(道山書院) 견학 및 참배



탄옹 권씨(1604~1672) 선생의 묘소 앞에서

지난 11월 4일 울산종친회는 해외 출장 중인 권옥술 종친회장을 대신해 권오영 명예회장 및 울산지역 각 친목회원 80여명과 함께 버스 2대로 대전에 위치한 도산서원(道山書院)과 귀후재, 유희당 귀공재를 견학 및 참배하였다.

도산서원은 광해군 때 예조좌랑을 지낸 만회 권득기(1570~1622) 선생과 한성부 우윤을 지내고 도학을 강론하던 그의 아들 탄옹 권시(1604~1672) 선생 이를 부자를 제사지내며 강화하는 곳으로 1693년(숙종19)에 세워졌다.(대전 문화재 자료 제3호) 귀후재는 조선후제의 문신인 유희당 권이진(1668~1734)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 아래 1813(순조13)에 건립되었다. (대전 기념물 제43호)

유희당 귀공재는 조선 영조 때 호조판서를 지낸 권이진(1668~1734)이 건물 뒷산에 있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독서와 교육을 하기 위해 1714년(숙종40)에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것이다. (대전 유형문화재 제6호)

권혁완 종친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출정식을 시작하였으며 권오영 종친회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조유적지를 견학하면서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둘러보고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마음에 담고 울산종친이 더욱더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권명달 청장년회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 울산개최에 울산종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각 친목회장의 인사말과 종친들의 덕담이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바로 옆에 모셔진 탄옹 권시 선생의 묘소에 제물을 올리고 분향 및 제배를 하였다.

그리고 유희당에 가는 길에 권이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워진 귀후재를 견학하고 마지막으로 유희당 귀공재를 둘러보고 기념 촬영 후 귀기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조님들의 위대한 업적에 안동권씨의 자부심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유적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서 탐방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권응목

안동권씨 종보 구독 확장 협조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전통이자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족친의 소통매체입니다.

지역종친회를 중심으로

1인당 10명 이상구독자를 확보하여 더 크게 화합합니다.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

